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내외 주최 오찬 전배사

존경하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리 일행을 위한 따뜻한 환영과 오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끝난 각하와의 회담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각하의 높은 경륜과 해박한 지식, 특히 한반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각하께서는 유럽연합 창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EU 가입국을 확대하는 데도 각하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국가 프랑스를 훌륭하게 이끌고 계시는 각하의 지도력과 프랑스 국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한국과 프랑스는 곧 수교 120주년을 맞는 오랜 우방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많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피 흘렸고, 민

주화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교역이 30% 가까이 늘었고, 해마다 30만명 안팎의 우리 국민이 프랑스를 찾고 있습니다. 프랑스와의 기술제휴로 만들어진 고속철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과 부산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 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면 북한과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이곳 파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각하께서 지지해 주신 6자회담이 이러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에 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자크 시라크 대통령 내외분의 건강과 프랑스의 무궁한 번영, 그리고 양국 국민의 영원한 우의와 협력을 위해서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